

World Bank의 對파키스탄 경제원조

1. 세계은행 Paul D. Wolfowitz 총재는 8월 15일 ~17일간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Musharraf 대통령, S. Aziz 총리 및 수전력청장 등 주요인사와 면담, 파키스탄의 경제성장이 궤도에 진입하였음을 평가하면서 지속성장과 경제성장 과실의 공평한 분배가 향후 파키스탄 정치사회 안정의 관건임을 강조하고, 파키스탄의 경제성장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개발, 빈곤퇴치분야 등의 분야에 향후 수년간 매년 약 15억불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함.

2. S. Aziz 총리 등은 Wolfowitz 총재 면담 계기에 ① 지난 60년대 WB가 인더스강 유역문제를 둘러싼 파키스탄·인도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양국간 관계안정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WB가 '제2의 Indus Initiative'를 통해 인더스강 유역 개발을 주도하여 이를 통해 파키스탄·인도간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망하는 한편, ② 파키스탄 경제의 지속성장에 불가결한 에너지 수급문

제 등 사회인프라 개발을 위해 향후 15년간 약 100억 불 정도의 원조를 WB에 요청함.

□ Jatoi 수전력청 장관은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더스강 유역에 수십 억불 규모의 댐(Bashar댐, Kalabah댐 Project)과 중소 규모 다목적댐 건설계획을 제시하면서 WB의 원조를 요청

□ Hafeez 회계감사원장은 파키스탄이 돈세탁방지법 등 국제적인 불법자금유출 방지 체제를 정비 중임을 설명하면서 파키스탄으로부터 불법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는데 WB의 지원을 요청

[자료: 주파키스탄 대사관]